

6·2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대부분

반부패 공약 채택 ‘무관심’

권태욱 기자 lucas@clubcity.kr

위례시민연대 설문조사...한명숙 후보 등 12.6%만 수용

6·2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한 시민단체가 제시한 반부패 공약 채택 여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가 최근 서울시·교육감·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 103명을 대상으로 당선 후 반부패 공약 이행 준수와 업무 추진비 공개·비리인한 1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없이 자진사퇴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12.6%만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와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 두명만이 반부패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에서는 여섯명 후보중에 남승희 후보만이 유일하게 수용할 뜻을 비쳤고 구청장 후보로는 10명만이 답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가 여섯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한 명, 국민참여당 한명, 무소속 두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에서는 권택상 양천구청장 후보가 유일했다.

황기룡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비리를 적결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며 “반부패투명행정 의지가 없는 후보자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부정 부패로 인한 병폐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 반대 협약식 후 파티를 열고 있다.



27일 한나라당 박성호 대전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 현장회의에서 정몽준 대표가 대전시장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북풍’에 밀린 민주

‘反戰·경제위기’ 카드로 역공

정세균 대표 등 강원도서 민심 자극

천안함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27일 ‘반전론’과 ‘경제위기론’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북 강경책에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로 응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평가하고 현 정권을 ‘무책임한 호전 세력’으로 규정해 ‘전쟁이나 평화냐’의 구도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코리아 리스크’의 급부상으로 주가와 환율까지 요동치자 ‘평화가 깨지면 경제도 흔들린다’는 논리로 중산층은 물론 여당 지지층까지 겨냥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접경지역인 강원도로 총출동 “6·25세대가 피땀 흘려 이룬 경제가 초토화되고 흔들리게 된다” (정몽영)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민심을 자극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정부 10년간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만들어진 평화도 관리할 능력이 없어 국민을 걱정과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풍’ 탄 한나라

“野, 천안함 정쟁화 중단해야”

정몽준 대표, 한명숙 후보에 쓴소리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7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천안함 사태를 정쟁거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개최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가가 국내정치에 발목이 잡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인정하면서 ‘1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말해 큰 틀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어제 바로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공격하며 국가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았는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도심 금연구역서 흡연땀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하반기 시행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내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서울시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작년 5월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결과 간접흡연제로 서울시업강화에 대해 서울시민의 91.3%가 찬성했으며, 비흡연자 뿐 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하는 등 서울시민의 높은 찬성율을 감안해 조례 개정을 통한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clubcity.kr

경기도, 전국 첫 자살 예방 홈페이지 구축

경기도와 도 광역정신보건센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살 예방 홈페이지 ‘어린왕자와 희망빌리지(www.mindsave.org)’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왕자와 희망빌리지는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어린왕자 캐릭터의 안내와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자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도서관과 자살 예방동기, 자살 관련 Q&A, OX 퀴즈 등을 통해 자살과 정신건강 관련 궁금증을 쉽게 풀 수 있다.

비타파워와 함께 떠나는 Refresh 태국파타야여행

행사기간: 2010년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간)
 행사품목: 비타파워 100ml 소병
 참여방법: 제품 라벨에 인쇄된 행운 번호 여덟 자리를 롯데칠성 홈페이지에 입력하시면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품내역: 1등(20명) 태국 파타야 여행권(3박 5일) / 2등(50명) 스마트폰 / 3등(120명) 롯데호텔 제주 숙박권 / 4등(5,000명)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매

*재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칠성 홈페이지(www.lottechilsung.co.kr)를 확인하세요 *본 행사는 태국관광청과 롯데 JTB가 함께 합니다.

● 기쁨두배, 한박스더! 이벤트

행사기간: 2010년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간)
 행사품목: 비타파워 100ml 소병 선물용 박스(10본입)
 참여방법: 박스 옆면 안쪽에 새겨진 '한 박스 더' 쿠폰을 확인 후 가까운 일반 수퍼에서 교환하세요(편의점, 할인점 교환 불가)